"전북, 백제의 정치 · 경제 중심지"

'전북 백제를 다시보다' 학술 세미나… 왕도 익산의 중앙 정치 · 정읍고부 중방 중심 경제 중심지였다

전북이 백제의 정치 경제 중심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개발연구소, 마한백제연구소가 10일 공동 주최한 '전북 백제를 다시보다' 학술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이 충남, 부여, 공주의 변방이 아니었다는 점과 왕도 익산의 중앙 정치와 정읍고부 중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중심지였다는 점도 부각됐다.

토론자들은 또 전북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면서 백제정신을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제정신은 미륵사와 서탑, 왕궁리 석탑, 사리장엄 등에서 볼 수 있는 독창성과 창의성이다.

특히 백제가 문화강국이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익산 왕궁리에서 출토된 유물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를 중심으로 한 가야 문화도 조명받았다. 가야의 철과 백제의 소금을 통한 문물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백제정신은 후백제와 동학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찬란했던 백제처럼 전북이 전통문화와 동북아시아 경제거점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백제를 다시보다' 학술세미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윤덕향 호남문화재연구원장,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김주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재홍 국민대학교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광영 기자

"온실가스 줄이기, 우리가 먼저 실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식음료 체인업종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식에서 이정섭(가운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군산군도 바다 위를 걷는다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계용역 착수

군산시는 10일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보고회는 문동신 군산시장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교 설치사업에 관한 설명과 추진방향 보고 등이 이뤄졌다.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은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고군산군도 최서측 옥도면 말도리 유인도서 말도, 명도, 방축도와 무인도서 보농도, 광대섬을 포함한 5개 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사업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170억원(국비 136, 도비 17, 시비 17)을 확보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다.

각 교량은 제1교 말도~보농도 320m, 제2교 보농도~명도 460m, 제3교 명도~광대섬 530m, 제4교 광대섬~방축도 120m, 총 연장 1,430m로 설계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교량의 형식 및 디자인을 결정해 2017년 6월 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9.8km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017년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 고군산군도의 관광산업은 더욱 활기를 띌 것"이라며 "다섯 개 이상의 섬을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사업임을 자부하며, 인도교가 설치되고 트래킹 코스가 조성되면 군산시 랜드마크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전북도가 수상레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군산 및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등과 함께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적정성 여부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점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안전 위해 요소 등은 보수 · 보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시내 상점 10곳 중 3곳 '개문 냉방'

전주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져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점 10곳 중 2곳은 '개문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북환경연합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4일과 9일 전주 걷고싶은거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총 98개의 상점 중 27곳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직접 상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냉방기 사용이 많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졌다.

환경연합은 개문 냉방의 원인으로 행정의 안일한 단속과 가정용보다 낮은 상업용 전기료, 매출에 급급한 상점의 이기주의 등을 지목했다.

환경연합은 상점의 개문 냉방 실태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오는 15일 3차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3차 조사에는 지난 4월부터 전주지역 기온측정을 하고 있는 '기후천사 청소년' 1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대-베트남 호치민 인문대 교류협정 체결

응고 티 푸옹 란 부총장… 전북대 필링코리아 프로그램 전통혼례체험 참여도

"전북대에서 즐기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은 전 세계 한류 확산은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베트남 대학 부총장이 전북대를 찾아 직접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한 뒤 이같이 말하며 학생 교류 등 유학생 유치협력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가 매 방학마다 외국 자매결연 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시행하는 필링코리아(Feeling Korea) 프로그램으로 외국 대학들의 관심이 뜨겁다.

실제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응고 티 푸옹 란(Ngo Thi Phuong Lan) 부총장은 지난 9일부터 전북대를 찾아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신한류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을 찾아 '한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특강을 하는 등 일정을 보냈다.

전북대-배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MOU체결

이어 10일 오전에는 이남호 총장을 접견하고 양 대학 간 인 · 물적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전북대 방문 중 특히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인 응고 티 푸옹 란 부총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전통혼례체험에 직접 참여해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일과 12일에 열릴 문화시설 체험과 필드트립에도 참여키로 하는 등 한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반영했다.

응고 티 푸옹 란 부총장은 "한국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전북대의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은 유학생 유치에 매우 훌륭한 매개가 될 것"이라며 "전북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국 바닷가 횟집, 비브리오균 검출 안돼

전국 바닷가 주변 횟집에서 판매되는 회, 해산물 등은 비브리오패혈증 등 관련 질병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횟집 등 항 · 포구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420곳의 수족관 물을 채취해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국 56개 주요 항 · 포구 주변 바닷가에 식중독 검사차량 4대를 순환 배치해 수족관물의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차량 내에 있는 유전자 추출 장치,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등을 통해 비브리오균 3종 오염 여부를 3시간 이내에 동시 분석할 수 있다.

비브리오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0월쯤 소멸한다. 특히 7~9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치사율이 58.3%에 이른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와 오염된 해수에 개방된 상처가 노출돼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패류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85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재욱(1982.08.14.생 2016.02.02.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오승이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느단457 상속한정승인
판사 오승이

▶ 피상속인: 망 김재욱
(1982.08.14.생 2016.02.02.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21,
106동 907호(서신동, 광진아파트)

▶ 공고인: 송수현

▶ 한정승인수리일: 2016. 8. 8.

▶ 공고기간: 2016. 8. 11. ~ 2016. 10. 10.

▶ 연락처: (청구인 송수현의 주소지)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21,
106동 907호(서신동, 광진아파트)